

韓國經濟發展의 展開過程*

邊 衡 尹**

<目 次>	
I.	머 리 말
II.	經濟開發戰略의 內容
III.	經濟開發戰略의 歸結(1)
IV.	經濟開發戰略의 歸結(2)
V.	1980年代의 韓國經濟
VI.	맺 음 말

I. 머 리 말

1945年 8月 以後는 여러가지로 時期區分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1962年부터 5個年計劃이 實施되기 시작한 점에 着眼하여 1961년까지와 1962年 以後로 時期區分하기로 한다. 그리고 對象時期를 1962年 以後로 限定하기로 한다.

1962年부터 5개년計劃이 實施된 後 그동안 1차 계획⁽¹⁾기간(1962~66年)에는 補完計劃(1964~66年)이 작성된 일이 있고, 5차 계획기간(1982~86年)과 6차 계획기간(1987~91年)에도 각각 修正計劃이 작성된 바 있다.⁽²⁾ 그리고 3차 계획기간(1972~76年)에는 1次 石油波動을 겪었으며, 4차 계획기간(1977~81年)에는 2次 石油波動과 함께 重化學工業投資調整이 있었다.⁽³⁾

그러나 이러한 試鍊을 겪으면서도 計劃은 中斷된 적이 없이 매년 運用計劃의 作成을 통해서 修正이 가해지면서 實施되어 왔다.

따라서 자연히 韓國의 經濟發展 내지 經濟成長을 다루는 데 있어 이 계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그 동안의 計劃이 採擇한 經濟開發戰略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 本論文은 1990年 3月 22日 本研究所가 주최한 「東北아시아의 經濟發展과 協力」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정식명칭은 제 1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다. 제 5차부터는 「經濟開發」 대신에 「經濟社會發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의 6차 계획의 정식명칭은 제 6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이다.

(2) 1차 계획의 補完計劃은 1964年 2월에 그리고 5차 계획과 6차 계획의 수정계획은 1983年 12월과 1988年 10월에 확정·발표되었다.

(3) 1979년과 1980년에 행해졌다. 그리고 1982년에도 행해진 바 있다.

는 所以는 바로 여기에 있다.

II. 經濟開發戰略의 內容

同計劃에서 採擇된 經濟開發戰略이 일관되게 輸出主導的 工業化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의 餘地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3차 계획부터 重化學工業中心의 그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982년을 최초 연도로 한 5차 계획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다만 그 目標을 7.0~8.0%의 經濟成長으로 하느냐 그 以上の 經濟成長으로 하느냐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지금 일단 8.0% 以上の 經濟成長을 高成長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4차 계획까지는 高成長을 目標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4차 계획의 경우는 <表 1>에서 보듯이 계획기간의 年 평균 經濟成長率을 각각 8.6%, 9.2%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차 계획부터는 7.0%~8.0%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1,2차 계획의 경우도 期間 年平均經濟成長率이 각각 7.1%, 7.0%이기는 하지만 1차 계획의 경우는, 1959년, 1960년, 1961년의 그것이 3.8%, 1.1%, 5.6% 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當時로서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차 계획의 경우는 그 實績이 9.6%나 되었다. 그러나 5차 계획 이후부터는 下向修正하여 7.0~8.0%의 經濟成長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제 그 동안의 經濟開發戰略의 內容이 상술한 바와 같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簡單한 根據를 提示하면, 우선 어느 계획의 경우를 莫論하고 製造業의 成長率은 計劃

<表 1> 1次~5次計劃의 計劃値와 實績値 (單位: %)

	1次計劃		2次計劃		3次計劃		4次計劃		5次計劃		
	1962~66		1967~71		1972~76		1977~81		1982~83	1984~86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計劃	實績	實績	計劃	實績 ¹⁾
경제성장률	7.1	7.8	7.0	9.6	8.6	9.7	9.2	7.5	7.5	7.5	8.7
산업별성장률											
농림어업	5.7	5.6	5.0	1.5	4.5	6.1	4.0	-0.6	5.5	3.5	3.0
광공업	15.0	14.3	10.7	19.9	13.0	17.9	14.0	10.0	7.0	4.7	11.7
제조업	15.0	15.0	—	21.8	13.3	19.0	14.3	10.5	7.3	10.0	12.0
SOC 및 기타	5.4	8.4	6.6	12.6	8.5	8.2	7.6	6.1	8.4	7.4	7.4 ²⁾
수출증가율	28.0	38.6	17.1	33.8	22.7	32.7	16.0	11.1	9.3	10.2	12.6

資料: 대한민국정부,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 1984~86』, 1983; 同,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 1988~91』, 1988 등.

註: 1) 구 계열에서 계산한 것.

2) SOC, 서비스업, 정부 및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산술평균.

〈表 2〉 6次計劃의 計劃値와 實績値

(單位: %)

	原 計 劃	修 正 計 劃	實 績	
	1987~91	1988~91	1988	1989(추정)
경 제 성 장 륜	7.3	8.2	12.2	6.5
산 업 별 성 장 륜				
농 립 어 업	2.5	3.8	9.0	-1.9
광 공 업	9.3	9.6	12.7	—
제 조 업	9.5	9.8	13.0	3.6
S O C	7.2	7.8	8.4	—
기 타 서 비 스	6.4	7.2	—	—
서 비 스 업	—	—	12.6	—
정부 및 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	—	—	5.9	—
수 출 증 가 율	—	13.9	28.4	2.6

資料: 대한민국정부, 『제 6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계획(1988~1991)』, 1988; 한국은행, 『1988년 국민계정(잠정)』, 1989; 경제기획원, 『1990년도 경제운용계획』, 1989.

〈表 3〉 産業別 投資配分實績(固定資本形成基準)

(單位: %)

	1972~76	1972~79		1972~76	1972~79
	농 립 어 업	10.1		—	기 계 공 업 ¹⁾
농 업	7.9	—	SOC 및 기타서비스업	64.4	66.7
광 공 업	25.5	—	전 력	7.5	6.0
제 조 업	24.4	23.2	통 신 · 수 송	20.5	24.5
경 공 업	9.4	8.7	주 택	15.3	15.8
중 화 학 공 업	15.0	14.5			
기 타 화 학 공 업	—	4.5			
철 강 · 금 속 공 업	—	4.5	합 계	100.0	100.0

資料: 대한민국정부, 『제 4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81』, 1976; 同, 『제 5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86』, 1981.

註: 1) 電子, 輸送用機器를 포함.

值에서나 實績値에서나 他産業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表 1〉 및 〈表 2〉)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에 輸出增加率을 보면 4차 계획을 除外하고서는 이미 그 自體가 큰 數値인 계획치를 上廻하는 實績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4차 계획의 경우에도 重點施策의 하나로 서 들어지고 있는 國際收支의 均衡이 내용상으로는 수출증대를 主軸으로 하는 것인데다가 5차 계획에서도 여전히 輸出主導戰略의 지속적 추구(대한민국정부,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86』, 1981)가 내걸어지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한편 固定資本形成을 基準으로 한 産業別 投資配分の 實績을 보면 〈表 3〉에서 알 수 있 듯이 重化學工業投資는 重化學工業의 建設을 基本目標의 하나로 하고 있는 3차 계획(1972~

76년)기간 중 總投資額의 15.0%(제조업투자의 60.2%)로서 通信·輸送의 20.5%, 住宅의 15.3% 다음을 차지하여 農業의 7.9%라든가 농림어업의 10.1% 보다 훨씬 컸다. 또 1972~79년에 그것은 14.5%가 됨으로써 역시 通信·수송의 24.5%, 주택의 15.8% 다음의規模이며, 농림어업 및 광업의 10.0% 보다도 컸다.

III. 經濟開發戰略의 歸結(1)

이러한 經濟開發戰略을 推進한 결과 우선 GNP, 1인당 GNP, 輸出 등이 '크게 增大되었다. (4) GNP는 1962년 23.2억달러에서 1971년 94.6억달러, 1981년 668.0억달러, 1988년 1,692.0억달러로 되었으며, (5) 1989년에는 2,040.0억달러로 推定된다. 그리하여 1인당 GNP도 1962년 87달러에서 각각 288달러, 1,734달러, 4,040달러로 되었고 1989년에는 4,830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은 1962년 0.55억달러에서 1971년 10.7억달러, 1981년 212.5억달러, 1988년 606.9억달러, 1989년 623.8억달러로 증가되었다.

다음으로 失業率이 크게 低下되었는데, 그것은 1963년 8.2%였던 것이 1989년에는 2.6%로 되었다(단 1980년 5.2%).

셋째로 國內貯蓄의 比重, 즉 투자재원의 國內조달률이 크게 높아져서 1986년 이후에는 100%를 웃돌게 되었다. 국내저축의 비중은 1962년 25.0%에서 1971년 57.8%, 1981년 75.9%, 1988년 126.1%, 그리고 1989년에는 107.2%로 되었다(1985년 97.3%, 1986년 112.9%). 물론 1次 石油波動期과 2次 石油波動期에는 국내저축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넷째로 雇傭構造가 近代化되었다. 이것은 總就業者人口에서의 被雇傭者 比重의 增大,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의 비중과 생산종사자·운수장비운전자·단순노무자의 비중 등의 증대를 말한다. 실제로 總就業者人口에서의 被雇傭者의 비중은 1963년 31.5%에서 1971년 39.4%, 1981년 47.1%, 1988년 57.0%, 1989년에는 59.1%로 되었다(1983년 49.4%, 1984년 52.9%). 특히 1989년에는 피고용자 중 日雇傭者를 제외한 비중만도 49.3%나 된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의 비중과 생산종사자·운수장비운전자·단순노무자의 비중은 1963년 3.3%와 15.0%에서 1971년 4.9%와 19.5%, 1981년 5.6%와 28.2%, 1988년 7.8%와 34.2%, 그리고 1989년에는 8.3%와 34.5%로 되었다(1983년 6.1%와 28.4%, 1984년 6.8%와 30.3%).

(4) 이하의 수치는 <附表>를 참조하기 바란다.

(5) 1962년은 1차 계획의 最初年度이고 1971년은 2차 계획의 最終年度, 1981년은 4차 계획의 最終年度, 1988년 및 1989년은 6차 계획의 2次年度와 3次年度이다.

다섯째로 産業構造의 高度化,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實現되었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주로 國民生産(附加價値)과 總就業者人口에서의 製造業 比重의 增大를 말하는데, 국민생산 기준으로 그 비중은 1962년 14.4%에서 1971년 21.3%, 1981년 30.1%, 1988년에는 31.6%로 되었으며 1989년에는 29.9%로 推定된다. 그리고 취업자인구 기준으로 그것은 1963년 7.9%에서 1971년 13.4%, 1981년 20.4%, 1988년에는 27.7%로 되었고 1989년에는 27.5%로 추정된다. 한편 工業構造의 高度化는 주로 제조업생산액이나 부가가치에서의 重化學工業의 比重, 즉 重化學工業化率의 增大를 말한다.⁽⁶⁾ 생산액 기준으로 그 비중은 1962년 17.1%에서 1971년 31.5%, 1981년 52.6%, 1987년에는 57.9%로 되었다(1979년 49.5%, 1980년 50.6%).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그것은 1962년 28.6%에서 1971년 37.3%, 1981년 52.4%, 1988년에는 58.8%로 되었다(1978년 49.9%, 1979년 52.1%, 1980년 51.5%).

여섯째로 輸出構造가 高度化되었다. 이것은 상품수출에서의 공산품수출의 비중 및 공산품수출에서의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의 비중의 增大를 말한다. 그런데 공산품수출의 비중은 1964년 51.6%에서 1971년 86.0%, 1981년 92.9%, 1988년 93.4%로 되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의 비중은 1964년 17.1%에서 1971년에는 16.4%로 되었다가 그 이후 계속 증대되어 1981년에는 47.3%, 1988년 53.9%, 그리고 1989년에는 53.6%로 되었다(1980년 46.2%, 1982년 52.3%).

이상에서 상술한 經濟開發戰略을 推進한 결과 GNP規模, 輸出規模 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失業規模가 크게 축소되고, 投資財源의 國內調達 정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고용구조가 근대화되었고 산업구조, 공업구조, 수출구조 등이 고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 資本主義의 進展度 내지 資本主義化의 程度를 總生産에서의 商品生産의 비중, 총취업자인구에서의 賃金勞動者의 비중, 實物部門에 대한 貨幣金融部門의 비율⁽⁷⁾ 등으로 평가한다면 資本主義化가 크게 進展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V. 經濟開發戰略의 歸結(2)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經濟開發戰略의 推進은 우선 1981년까지를 볼 때, 첫째로 韓國 經濟의 海外依存性을 深化시켰다. 다시 말하면, 韓國經濟를 海外經濟與件에 크게 좌우되는 體質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주로 組立加工型·外國技術依存型 輸出, 低産業聯關型

(6) 물론 총취업자인구에서의 비중 증대도 의미한다. 그 비중도 1988년에는 제조업취업자의 50.4%나 된다.

(7) 금융연관비율은 1963년 0.81에서 1971년에는 2.13, 1981년에는 2.59, 1987년에는 3.77로 되었다.

〈表 4〉 한국·대만·싱가포르의 主要經濟指標

(單位: %, 억달러)

	1973	1974	1975	1979	1980	1981
경제성장률						
한국	14.0	8.5	6.8	7.0	-4.8	6.6
대만	12.8	1.1	4.3	8.5	7.1	5.7
싱가포르	11.5	6.4	4.1	9.4	1.3	9.9
해외저축률						
한국	3.7	11.9	10.3	8.9	11.5	9.8
대만	-5.3	7.7	3.8	-0.5	1.6	-1.3
싱가포르	16.0	21.5	11.5	10.7	14.4	13.6
도매물가상승률						
한국	6.9	42.1	26.5	18.8	38.9	20.4
대만	22.7	40.7	-5.1	13.5	21.4	7.6
싱가포르	—	—	-1.4	14.4	19.6	3.9
소비자물가상승률						
한국	3.1	24.3	25.3	18.3	28.7	21.3
대만	8.0	47.7	5.2	9.7	19.1	16.3
싱가포르	19.4	22.4	2.7	3.9	8.5	8.3
무역수지(통관기준)						
한국	-10.15	-23.92	-21.63	-52.84	-47.87	-48.77
대만	6.90	-13.27	-6.43	13.29	0.78	14.11
싱가포르 ¹⁾	-36.06	-62.50	-65.12	-73.94	-98.93	-139.57
경상수지						
한국	-3.09	-20.23	-18.87	-41.51	-53.21	-46.46
대만	5.65	-11.15	-5.89	2.41	-9.13	5.19
싱가포르	-5.19	-10.21	-5.84	-7.36	-15.07	-13.78

資料: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지표』, 1987, pp.120-2; 한국은행조사제 1부, 『주요국의 경제지표』, 1990, pp.1-2, 9-10.

註: 1) 억 싱가포르달러 표시. 싱가포르달러의 對美달러 환율은 1986년 2.177, 1987년 2.106, 1988년 2.102.

工業化, 外資依存型 投資財源調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 2차 석유 파동 특히 2차 석유파동에 의해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1, 2차 석유파동기의 경제지표를 보면, 經濟成長率은 1974년 8.1%, 1975년 6.4%, 1980년 -3.7%, 1981년 5.9%, 도매물가·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각각 1974년 42.0%와 24.3%, 1975년 26.3%와 25.4%, 1980년 39.0%와 28.7%, 1981년 20.4%와 21.6%, 經常收支는 赤字가 1974년 20.23억달러, 1975년 18.87억달러, 1980년 53.21억달러, 1981년 46.46억달러나 된다. 3차 계획기간과 4차 계획기간의 각각의 평균이 경제성장률은 9.7%와 7.5%, 도매물가·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0.3%와 19.6%·15.9%와 18.6%이었고, 경상수지 적자는 1972년 3.71억달러, 1973년 3.09억달러, 1978년 10.85억달러이었음을 감안할 때 석

유파동은 한국경제에 성장둔화, 물가폭등, 대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등을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국제수지 적자가 외채잔액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외채잔액은 1973년 42.6억달러에서 1974년 59.4억달러, 1975년 84.6억달러 그리고 1978년 148.7억달러에서 1979년 203.0억달러, 1980년 272.0억달러, 1981년에는 324.0억달러로 되었다.

물론 1,2차 석유파동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表 4>에서 보듯이 대만·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韓國이 겪은 어려움이 더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海外依存性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高輸入依存度, 輸入誘發의 輸出, 外債累増, 技術導入의 増大 등도 海外依存性의 深化를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輸入依存度는 1962년 16.6%, 1971년 26.5%이던 것이 1981년에는 47.6%나 된다(한국은행, 『국민계정』, 1987).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수출의 輸入誘發係數는 1970년에 0.26이던 것이 1980년에는 0.38로 되었다. 이것은 日本의 수치(1985년 0.12)에 비해 볼 때 매우 높다. 産業別로는 1980년에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가 0.38로서 가장 크며 이것은 증화학공업의 수입유발계수가 큰 데 기인한다. 실제로 경공업이 0.29인 데 비해서 그것은 0.50이며, 특히 화학공업의 그것은 0.58이나 된다. 外債殘額은 앞에서 보았듯이 1962년에 0.89억달러이던 것이 1981년에는 324.0억달러로 되었다. 기술도입의 건수는 1962~66년에 33건, 1967~72년에 338건이던 것이 1981년에는 247건이나 되어 누계가 1,977건이나 되었으며, 代價支給額도 1962~66년에 8백만달러, 1967~72년에 26.5백만달러이던 것이 1981년에는 107.1백만달러나 되어 그 누계가 564.9백만달러나 되었다(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다음에 그것은 高物價를 持續시켰다. 1,2차 석유파동시기의 물가폭등에 대해서는 이미 본 바이지만 계획기간별로 볼 때 도매물가의 경우 연평균상승률은 1차 계획기간에는 16.5%, 2차 계획기간에는 7.7%, 3차 계획기간에는 20.3%, 4차 계획기간에는 19.6%이며, 소비자물가의 경우 연평균상승률은 1차 계획기간에는 16.4%, 2차 계획기간에는 12.6%, 3차 계획기간에는 15.9%, 4차 계획기간에는 18.6% 이다. 2차 계획기간의 도매물가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高物價임을 알 수 있다.

1976년 4월부터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⁸⁾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도, 또 1979년 4월 17일의 「經濟安定化 綜合施策」이 重化學工業投資調整을 중요한 內容의 하나로 담고 있는 것도 高物價가 持續되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75년 12월의 일이다.

〈表 5〉 農工間 所得 比較

(單位 : 千圓)

	1970	1976	1981	1982	1983	1986	1987	1988
농 가 소 득(A)	256	1,156	3,688	4,465	5,128	5,995	6,535	8,130
도 시 가 계 소 득(B)	381	1,152	3,817	4,327	4,991	6,732	7,796	9,663
A/B (%)	67.2	100.3	96.6	103.2	102.7	89.1	83.9	84.1

資料 : 농림수산부.

〈表 6〉 實質農家所得과 實質都市勤勞者家計所得

(單位 : 千圓)

	1970	1976	1981	1982	1983
농 가 소 득	255.8	1,156.3	3,687.9	4,465.2	5,128.2
농 가 구 입 가 격 지 수	16.4	46.3	128.5	144.3	156.2
실 질 농 가 소 득(A')	1,559.8	2,497.4	2,870.0	3,094.4	3,283.1
도 시 근 로 자 가 계 소 득	318.2	1,151.8	3,817.2	4,326.9	4,900.6
전 도 시 소 비 자 물 가 지 수	22.2	52.1	121.3	130.1	134.5
실 질 도 시 근 로 자 가 계 소 득(B')	1,433.3	2,210.7	3,146.9	3,325.8	3,643.6
A'/B' (%)	108.8	113.0	91.2	93.0	90.1

資料 : 농림수산부.

셋째로 그것은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에 투자의 과잉·중복을 초래하여 重化學工業投資調整을 필요하게 했다. 최초의 投資調整은 經濟企劃院이 주관이 되어 1979년 5월 25일에 단행되었다. 이것은 新規投資의 保留와 發電設備 製作, 重裝備(重機械)生産 등에 관한 投資調整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0년 8월 20일과 10월 7일에 시행된 重化學工業投資調整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發電設備 製作, 自動車 生産에 관한 投資調整(8월 20일)과 發電機器 生産, 船舶用 디젤엔진 生産, 銅製鍊·電子交換機 生産에 관한 投資調整(10월 7일)을 내용으로 한다.⁽⁹⁾

넷째로 이것은 農業을 沈滯시켰다. 이는 低産業聯關型 工業化, 低賃金⁽¹⁰⁾ 依存型 輸出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表 5〉에 의하면, 農家所得은 1970년에 도시근로자가계소득의 67.2%이던 것이 1981년에는 96.6%가 되었다.

그러나 각각 農家購入價格指數와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로 나눈 실질농가소득과 실질도시근로자가계소득을 비교할 때에는 1970년 108.8%, 1981년 91.2%가 된다(〈表 6〉). 더욱이

(9) 重化學投資調整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同, 80년대 『경제시책해설』, 1986을 참조.

(10) 이것은 低穀價를 필요로 한다.

농가소득은 在庫農産物을 낮게 평가하여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計上된 반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가구를 제외한 것이어서 그 격차는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農家負債가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대한 그 비율은 1970년 6.2%에서 1981년 11.8%가 되었고 倍數로는 3배 이상이 되었다(〈表 13〉).

패리티율도 그 동안 개선된 일이 있지만 1970년 94.2%, 1971년 100.0%이던 것이 1981년에 99.8%에 그치고 있다. 식량자급률도 1965년 93.5%이던 것이 1970년에는 80.5%, 1971년에는 71.2%로 크게 낮아졌는데 1980년에는 56.0%로, 1981년에는 43.2%로 더욱 크게 낮아졌다.

그런가 하면 농업종사자의 總就業者人口에서의 比重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勞動力의 女性化・高齡化 現象이 顯在化되었다. 농업종사자의 비중은 1963년에 64.4%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1981년에는 36.7%로 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은 농가의 경우에는 1963년 36.5%에서 1971년에는 41.3%, 1981년에는 43.4%로 되었다(總就業者人口에서의 여성의 비중은 34.8%, 36.6%, 38.1%이다). 한편 농가의 남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은 1963년 11.4%에서 1971년에는 14.4%, 1981년에는 21.3%로, 여성의 경우에는 8.9%에서 12.7%, 19.2%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19세 이하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에는 1963년 12.6%에서 1971년에는 12.2%, 1981년에는 5.7%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13.1%에서 13.6%, 4.9%로 크게 저하하였다(〈表 7〉).

다섯째는 經濟力集中化와 中小企業의 不振을 초래했다. 이것은 量産體制依存型 輸出, 金

〈표 7〉 農家 年齡別・性別 人口構成 및 農家全體中 女性の 比重 (單位: %)

	15~19세			55세 이상			女性の 比重
	農家總數中	農家男子中	農家女子中	農家總數中	農家男子中	農家女子中	
1963	12.82	12.63	13.15	10.48	11.37	8.93	36.51
1971	12.81	12.24	13.63	13.70	14.37	12.74	41.29
1981	5.33	5.69	4.87	20.06	21.26	19.08	43.41
1982	4.60	5.33	3.67	20.97	22.15	19.48	44.16
1983	3.58	3.91	3.15	21.58	22.48	20.02	43.68
1984	3.09	3.56	2.46	23.47	23.73	23.10	42.90
1985	2.81	3.14	2.36	24.30	24.67	23.81	43.08
1986	2.54	2.73	2.23	25.86	25.47	26.28	44.28
1987	2.55	2.84	2.19	28.32	28.18	28.52	45.19
1988	1.91	1.83	2.07	30.11	30.43	29.72	44.94

資料: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통계연보』.

〈表 8〉企業集團¹⁾의 經濟的 地位²⁾(I)

(單位: %)

	出 荷 額					從 業 員 數				
	1977	1978	1979	1980	1981	1977	1978	1979	1980	1981
上位 5社	14.8	15.9	16.2	16.5	21.5	8.5	9.5	10.5	9.9	8.4
上位 10社	5.6	6.1	6.4	4.0	6.9	3.7	4.4	3.4	4.8	3.7
上位 15社	4.0	4.2	4.3	3.0	4.2	2.1	2.1	3.5	3.1	2.7
上位 30社	7.6	8.3	8.1	11.2	7.1	6.2	6.1	7.0	5.9	5.0
합 계	32.0	39.5	35.0	34.7	39.7	20.5	22.2	24.4	23.7	19.8

資料: 경제기획원, 『공정거래백서』, 1984, p.102.

註: 1) 출하액 기준 30대 복합기업을 말함.

2) 광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점유율.

〈表 9〉中小企業(製造業)의 比重

(單位: %)

	事業體 數	從 業 員 數	生 產 額	附 加 價 值
1963	(98.7)	(66.4)	(58.5)	(52.8)
1966	(98.3)	(60.3)	(45.6)	(42.5)
1969	(97.4)	(51.8)	(31.7)	(29.7)
1972	(96.5)	(45.3)	(28.5)	(27.9)
1975	96.2(94.1)	45.7(37.6)	30.7(24.1)	31.7(25.3)
1976	96.1(94.1)	44.1(37.6)	29.5(22.5)	30.0(23.7)
1977	95.9(93.5)	46.0(37.6)	30.6(23.6)	32.4(25.4)
1978	96.2(93.6)	47.0(38.1)	32.4(24.8)	34.9(26.5)
1979	96.5(94.2)	47.8(39.5)	32.1(25.3)	35.2(28.1)
1980	96.6	49.6	31.9	35.2
1981	96.9	51.1	32.3	34.8
1982	97.3	53.8	34.4	36.2
1983	97.4	54.8	34.7	37.1
1984	97.5	54.9	34.6	36.3
1985	97.5	56.1	35.4	37.6
1986	97.6	57.6	37.8	39.0
1987	97.6	57.2	37.8	39.4

資料: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0년사』, 1981; 同, 『주요국의 중소기업관련통계』, 1988.

註: ()내는 종업원수 5~199인 사업체로 했을 경우의 비중.

融稅制上의 輸出産業 支援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表 8〉에서 경제력집중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複合企業의 출하액이 광공업 전체의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에 32.0%이었는데 1981년에는 39.7%나 된다. 그리고 종업원수의 비중도 1981년에는 19.8%이지만 1979년에는 24.4%이었다.

이러한 經濟力集中化가 곧 中小企業의 相對的 不振을 의미하는 물론이다. 중소기업의 비

〈表 10〉 所得階層別 所得占有率

(單位：%)

	上位 20% 所得占有率	下位 20% 所得占有率	下位 40% 所得占有率	지니係數
1965	41.80	—	19.30	—
1970	41.82	7.34	19.63	0.332
1976	45.34	5.70	16.85	0.391
1978	46.70	5.18	—	0.400
1980	45.39	5.09	16.06	0.389
1982	43.00	—	18.8	0.360
1985 ¹⁾	43.71	6.08	17.71	0.363
1985 ²⁾	42.72	6.96	18.91	0.3449 ³⁾
1988	42.24	7.39	19.68	0.3355
일본(1979)	37.5	—	17.2	—
대만(1979)	37.5	—	22.3	—
멕시코(1979)	57.7	—	9.9	—

資料：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7; 同, 1989.

註：1) 1987년 자료(p.80)의 수치임.

2) 1989년 자료(p.82)의 수치임.

3) 0.3449는 1988년과의 비교를 위해서 단독가구를 빼서 계산한 것.

중은 종업원수를 5~199인의 사업체로 했을 때 사업체에 있어서는 1963년 98.7%에서 1979년 94.2%로,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66.4%에서 39.5%로, 생산액에 있어서는 58.5%에서 25.3%로,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52.8%에서 28.1%로 저하되었다(〈表 9〉).

1976년 4월부터 시행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1981년 4월부터 시행된 「獨寡占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제정 등은 바로 이 經濟力集中化와 中小企業의 不振을 反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이것은 所得分配를 惡化시켰다. 이 所得分配의 惡化는 農業의 沈滯, 經濟力集中과 中小企業의 不振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니集中係數와 所得階層의 下位 20% 내지 40%에 대한 上位 20%의 倍數를 이용하면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 이후 이 두 가지가 모두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下位 40%에 대한 上位 20%의 倍數는 1965년에 2.16이던 것이 1980년에는 2.82로 되었고, 지니係數는 1970년 0.332에서 1976년 0.391, 1978년 0.400, 1980년 0.389로 되었다.

일곱째로 이것은 企業財務構造의 惡化, 低國內技術 등을 招來했다. 이 기간 중 製造業企業의 경우 부채비율은 계속 높아졌고 自己資本比率는 대체로 20% 정도로 유지되었다(〈表 11〉). 즉 부채비율은 1967년 151.2%, 1971년 394.2%, 1981년 451.5%이었고, 자기자본비율은 1967년 21.9%, 1971년 20.2%, 1979년 21.0%이었으나 1980년과 1981년에는 20%를 밑돌아 17.0%, 18.1%이었다(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경제지표』, 1984를 참조). 이것

〈表 11〉 製造業企業의 主要經營比率

(單位: %)

	自己資本比率			負債比率		
	綜合	大企業	中小企業	綜合	大企業	中小企業
1967	21.9	22.1	20.7	151.2	148.1	173.4
1971	20.2	19.9	38.3	394.2	402.1	161.4
1979	21.0	20.9	21.1	377.1	377.5	374.3
1981	18.1	18.1	18.0	451.5	451.1	453.2

資料: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경제지표』, 1984.

은 他人資本依存型(外國資本依存型) 輸出主導의 工業化에 주로 기인함은 물론이다. 그 동안 있었던 不實企業整理는 바로 기업 재무구조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國內技術開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기술개발력지수에 의하면 1982년에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3.2에 불과했다. 그리고 기술수출액은 1980년에 30만 달러에 불과하며, R&D 투자의 對GNP 비중도 1980년에 0.58%에 불과했다.⁽¹¹⁾ 물론 이것은 外國技術依存型 輸出主導의 工業化에 기인한다.

이상에서 그 동안의 經濟開發戰略의 推進은 海外依存性의 深化를 비롯하여 高物價의 持續, 農業의 沈滯, 經濟力集中化, 中小企業의 不振, 所得分配의 惡化, 企業財務構造의 惡化, 低國內技術開發 등을 야기시켰음을 알 수 있다. 石油波動時期의 물가폭등, 大幅의 國際收支赤字, 外債累增 등은 바로 韓國經濟의 海外依存性의 深化를 反映해주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V. 1980年代의 韓國經濟

이러한 부정적인 귀결로 해서 5차 계획부터는 「安定·能率·均衡」⁽¹²⁾을 계획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7.0%~8.0%의 經濟成長을 뜻하는 適正成長⁽¹³⁾이 목표로서 내걸어지게 된 것이다. 1982~85년을 보면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技術導入의 增大, 外債殘額의 增大, 農家負債의 增大, 農業勞動力의 高齡化의 進行, 經濟力集中化 등의 문제가 지속 혹은 새로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11) 한국은행 조사제 1부, 『주요국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1990. R&D 투자의 對GNP 비중은 1970년 0.38%, 1975년 0.42%, 1980년 0.58%, 1985년 1.59%, 1987년 1.93%이다.

(12) 3차계획은 「成長·安定·均衡」을, 4차계획은 「成長·能率·衡平」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13) 安定成長이라고도 한다.

분명히 物價上昇率은 도매의 경우 1982년 4.6%로 낮아진 후 1983년에는 0.2%, 1984년에는 0.7%, 1985년에는 0.9%이었고, 소비자의 경우도 1982년 7.1%로 낮아진 후 1983년 3.4%, 1984년 2.3%, 1985년 2.8%이었다. 國際收支의 경우도 적자폭이 계속 축소되었다. 貿易收支 赤字는 1982년 23.98억달러, 1983년 17.47억달러, 1984년 13.86억달러, 1985년 8.53억달러로 되었고 經常收支 赤字도 1982년 26.50억달러, 1983년 16.06억달러, 1984년 13.73억달러, 1985년 8.87억달러로 되었다.

그러나 우선 技術導入이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代價支給額도 크게 증가했다. 1982~85년의 기술도입 건수는 1,561건이었고 대가지급액은 773.9백만달러에 달했다. 이 액수는 1981년까지의 그것보다 무려 109.0백만달러나 크다(〈表 12〉).

다음에 外債殘額은 계속 증가했다. 1982년에는 371.0억달러로 증가했고 1983년에는 404.0억달러, 1984년에는 431.0억달러, 1985년에는 467.0억달러로 되었다(〈附表〉). 특히 1985년은 외채잔액이 가장 큰 해로 잘 알려져 있다.

셋째로 農家負債는 계속 증가했다. 농가소득에 대한 농가부채의 비율은 1982년 18.6%, 1985년 35.3%이었다(〈表 13〉). 그리고 農業勞動力의 高齡化도 계속 진행되었다. 55세 이상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에는 1982년 22.2%, 1985년 24.7% 여성의 경우에는 1982년 19.5%, 1985년 23.8%로 되었다. 이에 반해서 19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表 12〉 技術導入件數 및 代價支給額(1963~89) (單位: 件, 백만달러)

	技術導入件數(A)	代價支給額(B)	1件當支給額(B/A)
1963~66	33	0.8	0.02
1967~72	338	26.5	0.08
1973~76	381	86.2	0.23
1977~81	1,225	451.4	0.37
小 計	1,977	564.9	0.29
1982~89	3,785	3,115.2	0.82
1982	308	115.7	0.38
1983	362	149.5	0.41
1984	437	213.2	0.49
1985	454	295.5	0.65
1986	517	411.0	0.79
1987	637	523.7	0.82
1988	618	676.3	1.09
1989	452	930.3	2.06
計	5,762	3,600.2	0.62

資料: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년도; 한국경제신문 1990. 3. 13.

〈表 13〉農家負債

(單位:千圓,%)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농가소득(A)	1,640	2,353	2,693	3,688	4,465	5,128	5,549	5,736	5,995	6,535	8,130
농가부채(B)	102	90	339	437	830	1,285	1,784	2,024	2,192	2,390	3,131
B/A	6.21	3.82	12.58	11.84	18.58	25.05	32.14	35.28	36.56	36.57	38.51

資料: 농림수산부.

〈表 14〉企業集團의 經濟的 地位(Ⅱ)

(單位:%, 個)

		5大企業	10大企業	15大企業	20大企業	25大企業	30大企業
출 하 액	1982	22.6	30.2	33.9	36.6	38.8	40.7
	1985	23.0	30.2	33.9	36.4	38.5	40.2
	1987	22.0	28.2	31.6	33.9	35.8	37.3
종 업 원 수	1982	8.4	12.2	14.5	16.0	17.1	18.6
	1985	9.7	11.7	14.4	15.5	16.6	17.6
	1987	9.9	11.9	14.0	15.1	16.3	18.1
부 가 가 치	1982	17.4	23.1	26.6	29.4	31.2	33.2
	1985	18.7	24.2	27.3	29.5	31.4	33.1
	1987	20.1	25.3	28.8	30.7	32.3	34.3
유 형 고 정 자 산	1982	16.3	23.8	27.8	31.5	34.4	37.2
	1985	20.4	27.9	31.6	34.4	36.8	39.6
	1987	20.2	27.6	30.6	32.9	34.6	36.6
계 열 기 업 수	1982	89	153	187	223	241	271
	1985	94	147	190	218	246	270
	1987 ¹⁾	97	147	203	228	270	282

資料: 경제기획원.

註: 1) 제조업에 관한 것임.

5.3%, 3.1%로 여성의 경우에는 3.7%, 2.4%로 되었다(〈表 7〉).

넷째로 經濟力集中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30大 複合企業의 비중은 종업원수에서는 1962년 18.6%에서 1985년 17.6%로 약간 줄었고 出荷額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1982년 40.7%, 1985년 40.2%) 附加價値와 有形固定資産에서는 증가했다. 附加價値에서의 비중은 1982년에 33.1%나 되는데 1985년에는 34.3%로 되었고 有形固定資産의 비중도 1982년에 37.2%나 되는데 1985년에는 39.6%로 되었다(〈表 14〉).

3低의 好材를 맞은 해인 1986년 이후를 보면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였고 그것도 큰 幅인 데 기인하는 外債殘額의 減少, 經濟力集中 등을 除外하고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문제 중에서 바뀐 것은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도리어 또 다시 나타난 문제, 새로이 등장한 문제, 여전히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제수지는 1986년에 드디어 흑자로 바뀌었고 흑자폭은 46.17억달러나 되었다. 그리고 1987년, 1988년에는 98.54억달러, 141.61억달러가 되었다. 1989년에는 크게 減少되었지만 여전히 51.03억달러나 된다. 한편 외채잔액은 1986년에는 445.0억달러, 1987년에는 356.0억달러, 1988년에는 312.0억달러로 계속 減少했다.

그러나 技術導入은 크게 增加하고 있다. 1986년~89년 사이에 計劃全期間의 38.6%나 되는 2,224건의 기술도입이 행해졌다. 그리고 代價支給額은 70.6%인 25.4억달러나 된다. 件數도, 代價支給額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2>).

다음에 農家負債도 계속 增加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대한 농가부채의 비중은 1986년에는 36.6%, 1987년에는 36.6%, 1988년에는 38.5%나 된다(<表 13>). 그리고 食糧自給率은 다시 減少하고 있다. 그것은 1986년에 44.5%이던 것이 1987년에는 41.0%, 1988년에는 39.3%이다. 농가소득의 도시가계소득에 대한 비율도 다시 감소하여 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것은 1986년에는 89.1%, 1988년에는 84.1%이다. 그리고 農業勞動力의 高齡化도 계속 進行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에는 1986년 25.5%, 1987년 28.2%, 1988년 30.4%, 여성의 경우에는 1986년 26.3%, 1987년 28.5%, 1988년 29.7%이다. 이에 반해서 19세 이하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1982년 2.7%, 1988년 2.1%, 여자의 경우에는 2.2%, 2.1%이다.

그러나 外債殘額은 감소하는 데 反하여 外國人 直接投資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6년에는 4.77억달러, 1987년 6.26억달러, 1988년 8.94억달러, 1989년 8.12억달러나 된다. 그런데 1989년의 8.12억달러의 액수는 1982~85년의 6.80억달러보다도 1.32억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그리고 수출은 여전히 輸入誘發的이고 또 國內技術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데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1985년보다 작아졌다고 해도 1986년에는 0.34, 1987년에는 0.35나 된다(1985년 0.37).

한편 국내기술 수준은 商工部 자료에 의하면 1987년 현재로 선진국의 40 내지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개발력 종합지수는 1987년 현재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아직도 4.1에 불과하다.

그리고 1982~85년에 안정적이었던 物價가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들과 아울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1985년 2.8%였던 것이 1988년에는 7.1%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比重 增大에도 留意할 필요가 있다. SOC 및 기타 서비스業 중

기타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취업자인구 기준으로 1982년부터 40.0%를 상회하여 40.3%가 된 후 계속 증가하여 1989년에는 45.8%나 된다.

VI.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經濟開發戰略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체로 海外依存性, 農業沈滯, 所得分配의 惡化, 經濟力集中, 中小企業의 相對的 不振, 서비스産業의 肥大, 輸入誘發의 輸出, 低國內技術, 高物價 등의 문제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외의존성의 문제, 소득분배의 문제, 경제력집중의 문제, 중소기업의 문제에 관한 이해 및 그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서로 얽혀 있으면서 향후 韓國의 經濟發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 해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中長期的 해결과제로서 위치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높은 해외의존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우리는 농업침체의 문제, 수입유발적 수출의 문제, 저국내기술의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침체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所得分配은 지니계수 등으로 볼 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조사 대상자 중 18.4%, 「변화없다」가 22.1%,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가 59.5%로 나와 대다수가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년 뒤의 소득분배도 악화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6.2%나 된다고 한다[김선웅(1989)]. 이것은 金融貯蓄資産所有의 不平等度, 土地保有의 不平等度가 所得不平等度보다 매우 큰 데[강봉균(1989)]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經濟力集中의 문제도 이와 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素材部品生産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특히 신기술개발의 문제를 보면 기술수준은 1982년 이후 크게 개선된 점이 없고 기술수준의 개선을 위한 R&D 투자의 對GNP 비중이 1987년 이후 2% 이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R&D 투자의 성격상 중요한 투자의 절대액이 매우 미미한 형편이고, 3低 호제기의 기술개발투자가 오히려 1983~85년 보다 떨어지고 있음(〈表 15〉)을 보면 기술개발투자가 아직 낮다. 더욱이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知的所有權 問題)는 新技術開發을 매우 어렵게 만

〈表 15〉 技術開發投資의 增加率(年平均增加率)

(單位：%)

	1983~85	1986~89		1983~85	1986~89
製 造 業	82.5	24.0	(一般機械)	-19.2	39.7
(電氣電子)	149.8	20.6	(織 維)	121.3	6.9
(運送裝備)	168.7	27.9			

資料：全哲煥(1990, p. 80).

註：경상가격기준, 1983~88년은 실적치, 1989년은 계획치.

들고 있다.

결국 앞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附表〉 主要經濟指標

	1962	1971	1972	1973	1974	1975	1977	1978	1979
1. GNP(억달러)	23.15	94.56	106.32	134.46	187.01	207.95	366.29	513.41	613.61
2. 1인당 GNP(달러)	87	288	318	395	540	590	1,008	1,392	1,640
3. 실업률(%)	8.2 ⁶⁾	4.5	4.5	4.0	4.1	4.1	3.8	3.2	3.8
4. 피고용자의 비중 ¹⁾	31.5 (18.8)	39.4 (28.9)	38.6 (27.5)	37.9 (27.3)	38.9 (29.3)	40.6 (31.0)	44.6 (23.5)	46.5 (35.7)	47.6 (37.2)
5. 국내저축의 비중 ²⁾ (%)	25.0	57.8	75.1	86.6	60.7	61.1	91.7	85.6	79.1
6. 수출(억달러)	0.55	10.7	16.2	32.2	44.6	50.8	100.5	127.1	150.6
7. 무역수지(통관기준)(억달러)	-3.67	-13.26	-8.98	-10.15	-23.92	-21.93	-7.64	-22.61	-52.83
8. 경상수지(억달러)	-0.56	-8.48	-3.71	-3.09	-20.23	-18.87	-0.12	-10.85	-41.51
9. 제조업의 비중(%)									
국민생산 기준 ⁴⁾	14.4	21.3	22.4	25.1	26.0	26.2	27.5	28.0	28.7
취업인구 기준	7.9 ⁶⁾	13.4	13.6	15.8	17.3	18.6	21.6	22.3	22.8
10. 서비스 산업의 비중 ³⁾ (%)									
국민생산 기준 ⁴⁾	42.1	44.8	44.6	43.5	43.1	41.9	42.0	41.4	41.2
취업인구 기준	25.3 ⁶⁾	39.1	31.7	30.6	30.4	30.9	31.1	32.4	34.6
11. 중화학공업의 비중(%)									
생산액 기준 ⁴⁾	26.8	31.5	31.4	35.2	43.0	42.6	45.6	47.0	49.5
부가가치 기준 ⁴⁾	28.6	37.3	35.6	39.4	48.1	45.3	48.7	49.9	52.1
12. 공산품 수출 비중(%)	51.6 ⁷⁾	86.0	87.7	88.2	90.2	88.3	87.5	89.8	90.1
13.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의 비중(%)	17.1 ⁷⁾	16.4	24.2	27.3	37.5	30.4	38.4	39.6	43.4
14. 금융연관 비율	0.81	2.13	2.26	2.33	2.22	2.19	2.13	2.15	2.16
15. 물가상승률(%)									
도매	9.1	9.0	13.9	7.2	42.0	26.3	9.0	11.8	18.6
소매	6.6 ⁸⁾	14.0	11.7	3.0	24.3	25.4	10.0	14.5	18.2
16. 외채잔액(억달러)	0.89	29.2	35.9	42.6	59.4	84.6	126.5	148.7	203.0

註 : 1) 常時雇, 臨時雇, 日雇의 합계의 총취업인구에서의 비중, 그리고 ()내는 상시고, 임시고의 비중.

2) 총투자율에 대한 비율.

3)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의 기타 서비스업을 말함.

4) 경상가격 표시임.

6) 1963년의 수치.

7) 1964년의 수치.

8) 서울 소비자물가(1980=100).

〈附表〉 主要經濟指標(계속)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 GNP(억달러)	605.00	668.00	713.00	795.00	870.00	897.00	1,027.00	1,284.00	1,692.00 ^P	2,040.00 ^o
2. 1인당 GNP (달러)	1,592	1,734	1,824	2,002	2,185	2,194	2,503	3,098	4,040 ^P	4,830 ^o
3. 실업률(%)	5.2	4.5	4.4	4.1	3.8	4.0	3.8	3.1	2.5	2.7
4. 피고용자의 비중 ¹⁾	47.2	47.1	47.6	49.4	52.5	54.1	54.4	56.2	57.0	59.1
	(37.7)	(38.3)	(38.8)	(41.4)	(43.9)	(44.8)	(45.0)	(46.9)	(48.1)	(39.3)
5. 국내저축의 비중 ²⁾ (%)	72.2	75.9	83.7	94.5	97.0	97.3	112.9	123.5	126.1	107.2 ^o
6. 수출(억달러)	175.0	212.5	218.5	244.4	292.4	302.8	347.1	472.8	606.9	623.8
7. 무역수지(통관기준)(억달러)	-47.87	-48.77	-23.98	-17.47	-13.86	-8.53	31.31	61.61	88.85	9.12
8. 경상수지(억달러)	-53.21	-46.46	-26.50	-16.06	-13.73	-8.87	46.17	98.54	141.61	51.03
9. 제조업의 비중(%)										
국민생산 기준 ⁴⁾	29.9	30.1	29.4	30.1	31.0	30.5	31.7	32.2	31.6 ^P	29.9 ^o
취업인구 기준	21.6	20.4	21.1	22.5	23.2	23.4	24.7	27.0	27.7	27.6
10. 서비스 산업의 비중 ³⁾ (%)										
국민생산 기준 ⁴⁾	43.7	43.7	45.0	44.8	44.6	45.4	45.6	46.0	45.9 ^P	—
취업인구 기준	37.3	38.2	40.3	41.4	42.4	44.5	44.8	44.3	44.8	45.8
11. 중화학공업의 비중(%)										
생산액 기준 ⁴⁾	50.9	52.6	52.8	53.5	55.0	55.1	55.9	57.9 ^P	—	—
부가가치 기준 ⁴⁾	51.5	52.4	53.0	55.3	56.3	56.9	57.1	57.1	58.8 ^P	—
12. 공산품 수출 비중(%)	92.3	92.9	93.7	94.4	95.0	95.4	94.6	94.8	93.4	93.4 ^P
13.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의 비중(%)	46.2	47.3	52.3	56.8	58.3	59.6	54.6	54.9	53.9	53.6 ^P
14. 금융연관 비율	2.40	2.59	2.99	3.08	3.26	3.51	3.59	3.77	—	—
15. 물가상승률(%)										
도매	39.0	20.4	4.6	0.2	0.7	0.9	-1.5	0.5	2.7	1.5
소매	28.7	21.6	7.1	3.4	2.3	2.5	2.8	3.0	7.1	5.1
16. 외채잔액(억달러)	272.0	324.0	371.0	404.0	431.0	467.0	445.0	356.0	312.0	294.0

參 考 文 獻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_____, 『공정거래백서』, 1984.

_____, 『80년대의 경제시책해설』, 1986.

_____, 『한국경제지표』, 1987.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7.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9.

_____, 『1990년도 경제운용계획』, 1989.

_____, 『경제활동인구통계연보』, 각 년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제 4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81』, 1976.

_____,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86』, 1981.

_____,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1984~86』, 1983.

_____,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1984~91』, 1988.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0년사』, 1981.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경제지표』, 1984.

_____, 『주요국의 중소기업관련통계』, 1988.

한국은행, 『국민계정』, 1987.

_____, 『1988년 국민계정(잠정)』, 1989.

한국은행 조사제 1 부, 『주요국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1990.

_____, 『주요국의 경제지표』, 1990.

기타 경제기획원자료, 농림수산부자료, 한국경제신문.

강봉균,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 1989.

김선웅, 「소득 및 부의 공정분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성향」, 1989.

全哲煥, 「우리나라의 經濟動向, 그 性格과 課題」, 1990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전체회의 논문, 1990.